

# ‘팔마비’ 최석·작가 조정래...순천의 인물들

문학평론가 장병호 수필가 ‘순천의 인물 100인’ 펴내 정치·문화·교육 등 5개 분야 유형별 나눠 생애·활동상 그려



순천시 영동에 있는 ‘팔마비’는 고려시대 승평부사를 역임한 최석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다.

팔마비 주인공 최석 부사, 낙안읍성 수호신 임경업, 마라토너 남승룡, 소리꾼 박초월,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순천이 낳은, 순천이 자랑하는 인물들이다. 흔히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원래 이 말은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지역의 자부심과 특성을 담고 있는 말로 부정적 측면이 아닌 그 나름의 특성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만큼 순천에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세울 인물이 많다. 위에 거론한 이들 외에도 순천부사로 이순신을 보좌했던 권준, 동심모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정채봉 작가, 근대 어류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정문기 등도 있다.

순천의 인물을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문학평론가인 장병호 수필가가 펴낸 ‘순천의 인물 100인’ (헤드림출판사·사진)은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순천인’에 대한 기록이다. 장작가는 지금까지 수필집 ‘코스모스를 기다리며’와 평론집 ‘적박한 시대와 문학의 힘’ 등을 펴냈다.

전화 인터뷰에서 장 작가는 “원래 고향은 장흥이지만 순천에 와 30년 넘게 살다보니 제2고향이 됐다”며 “흔히 ‘순천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막상 대표 인물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다. 지난 2018년 교직에서 퇴직을 했던 그는 본격적으로 순천 인물에 대한 책을 써보자는 결심을 하고, 마침내 4년 여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은 어디까지 ‘순천인’으로 기준을 정하느냐라는 문제였다.

“일단 순천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지요. 혹은 순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순천에 와서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명확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거나 후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순천인’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인물들이 선정됐다. 이름의 가나다순이나 연대순보다는 유형별로 나누었다. 정치, 애국,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섯 분야로 구분했고 해당 항목

에서는 연대순으로 배열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을 물었더니 그는 팔마비의 주인공 최석 부사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고을에서 말 여덟필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최석은 승평 수령으로 있을 때 암말이 낳은 새끼까지 돌려보냈다. 그 후로 말을 바치던 폐단이 사라졌고 고을에서는 1308년 팔마비를 세워 최석의 덕을 칭송했다.

낙안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임경업 장군 비각에서 당산제를 올린다. 임경업은 낙안 사람들에게 수호신으로 추앙받는다. 장 작가는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부임해 낙안읍성을 견고하게 보수했다”며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물론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돼 순천에 들러 수군 재건의 의지를 다졌던 이순신의 행적은 역사에 조금만 관심있는 이들이면 아는 사실이다. 이밖에 거북선 돌격대장으로 용맹을 떨친 박이량과 이기남, 향교 유생으로 국토수호에 몸을 바친 성응우 등도 순천이 낳은 인물이다.

문화예술인들도 순천 출신이 많다. 순천부사로 재임하며 신증승평지를 편찬한 홍중정,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한 김양수, 순천의 옛 인물의 면모와 일화를 담은 ‘강남약부’를 펴낸 조현범 등도 있다.

또한 순천의 아들로 세계적인 마라토너인 남승룡과 ‘태백산맥’의 작가로 선암사에서 출생한 조정래, 한국 현대문학에 감수성 혁명을 일으켰던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도 순천이 낳은 인물이다.

이밖에 순천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변요한, 법복에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효봉스님, 순천이 교육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했던 김종익, ‘뿌리 깊은 나무’ 등을 발행해 전통문화 보전에 앞장섰던 한창기 등도 순천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여러 인물의 생애를 살펴면서 ‘인물이 곧 역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물을 안다는 것은 곧 그가 살았던 교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지요. 누구나 발을 딛고 선 땅과 숨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충북 청주시에 자리한 ‘운보의 집’은 한국 화단에 큰 족적을 남긴 김기창 화백의 저택이다. 김 화백의 호를 따 이름을 지은 이곳에는 세상을 떠날때까지 기거했던 한옥에서부터 전시관, 정원, 그리고 부부의 묘가 조성돼 있다. ‘운보의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즈넉한 분위기의 연못과 정자가 방문객을 맞는다. 한쪽의 동양화 같은 연못 앞에는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운보의 집’이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데에는 지난 2018년 안방을 사로잡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공이 크다. 드라마의 촬영무대로 알려지면서 명작의 산실과 그의 손때가 묻은 정원을 둘러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다.

솔가 공간’이 떠올라 집어들게 됐다”고 귀띔했다. 모네에서부터 프리다 칼로에 이르기까지 17명의 예술가와 그들이 살았던 공간이 소개된 책에는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미국 산타페), 반 고흐(프랑스 아를) 등 기자가 오래 전 여행 길에 들렀던 곳들도 포함돼 있어 다시 방문한 것 처럼 반가웠다.

사실 지난해 취재차 둘러봤던 국내의 예술가들의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예술가들이 오래 머문 공간은 자신들의 삶 뿐만 아니라 작품에 영감을 준 뮤즈같은 존재였다. 예술가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아트리에 등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모네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며 치열한 작품활동을 펼치는 힘을 얻은 건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우거진 지베르니 집이었다.

## ‘예술가가 사는 집’

네의 집’도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출신의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는 56세가 되던 해, 파리 근교인 이곳에 내려가 말년까지 43년 동안 창작에 몰두했다.

인구가 500명에 불과한 지베르니는 마을 전체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연상케 할 만큼 집과 정원, 작업실 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무엇보다 방마다 설치된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치가 ‘절작’이다. 특히 모네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2층 맨 끝방에서 내려다 보는 정원 풍경은 압권이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화가의 집’으로 여는 건 지난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환관의 책 때문이다. 지인은 서점의 신간 코너에서 ‘예술가가 사는 집’ (멀리사 와이즈 & 케이트 루이스·아트북스)을 접한 순간, 지난해 기자가 광주일보 기획 시리즈로 연재한 ‘사람이 브랜드다-에

울해는 한국서양화단의 선구자 오 기호 화백(1905-1982)이 세상을 떠난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는 오 화백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 때까지 근 30년간 거주했던 초가(광주시기념물 제6호)가 남아 있어 거장의 삶과 예술세계를 되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만 했을 뿐 현재는 당국의 관리소홀로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 운보나 모네의 집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잠재력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들의 집을 잃는’다는 것은 예술가들의 삶, 그들의 창작경험과 접촉할 수단을 잃는 것이다 (‘예술가가 사는 집’). 2022년 새해, 예술관광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아닐까.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 청소년한부모 주거권 보고서 등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청소년한부모의 주거권과 광주시 수당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했다.

먼저 ‘광주지역 청소년한부모 주거권 보장 방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양육환경의 악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재난 취약 계층으로서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주거권 보장방안을 다룬다. 재단은 정책분석,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한부모 당사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광주광역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개인의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고용연계 없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보고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통권 100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해 1960년 창간한 학술 간행물 ‘미술자료’(美術資料) 통권 100호가 나왔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미술자료 100호에는 그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글과 함께 1~100호 목차, 논문 5편이 실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신인 국립박물관 고고과가 창

간한 미술자료는 1962년에 발행된 5호부터 미술과가 펴냈고, 지금은 미술부가 제작을 담당한다.

현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간행하지만, 1년에 한 권만 발간한 적도 있다.

미술자료는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분야 유물을 논했으나, 차츰 미술사학 전문 학술지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게재된 원고는 논문·자료 소개·서평 등을 합쳐 484편이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